

彙 報 [신석기연구 소식]

1. 한국신석기연구회 소식

- ▶ 韓國新石器研究 제2호 발간(2001.10.30)
安德任·李仁盛, 酸素同位元素分析을 이용한 大竹里貝塚
조개채집의 季節性 연구
金建洙, 群山 노래섬貝塚 食料資源의 季節性 把握
崔鍾赫, 生業活動으로 본 한반도 신석기문화-中西部地
方과 東北地方의 貝塚遺蹟을 중심으로
河仁秀, 東三洞 1호주거지 出土 植物遺體
崔三鎔, 白翎島 말등遺蹟의 뼈유물 研究
金碩勳, 黃海 中部 섬지역의 신석기유적 현황
이영덕, 부안 위도의 신석기패총
윤형원, 원주 법천리 수습 신석기시대 유물
강원중, 장수 월곡리유적 수습 신석기시대 유물
서국향, 장수 남양리유적 수습 신석기시대 유물
김규동, 부안 계화도의 신석기유적
- ▶ 한국신석기연구회 정례발표회 (2002.1.26, 국립문화
재연구소 회의실)
소상영, 고남리 패총 유적의 성격
양성혁, 중서부지방 신석기시대 편년 재검토
이준정, 중부 서해안 지역의 신석기-청동기시대 생계양식의
변화
유혜선·안승모, 진안 갈머리유적 집석유구 토양에 대한 잔
존지방산 분석
이종훈, 소연평도 신석기 패총 발굴조사
하인수, 범방패총 발굴개요
오연숙·강창화, 제주 온평리유적 발굴조사 개요

2. 발표회 소식

- ▶ 양양문화원 제6차국제학술세미나 (2002.3.2, 양양문
화원)
주최 : 양양문화원·한국선사고고학회
사라 넬슨, 세계 고고학적 견지에서 본 오산리 유적지
임효재, 오산리 선사문화와 유적공원의 활용전망
왕웨이, 興陵溝遺蹟 발굴의 중요성과

3. 단행본 소식

- ▶ 韓國 新石器時代의 環境과 生業(동국대학교 매장문화
재연구소 編, 2002.2)
·崔基龍, 韓半島 後水期の 植生 및 氣候 變遷史
·辻誠一郎, 日本列島の 環境史와 人間活動
·甲元眞之, 동북아시아 선사시대의 生業活動
·安承模, 신석기시대의 식물성식료(1) - 야생식용식물 자료소개
·金英熙, 遼東半島 신석기문화의 검토
·河仁秀, 한국 隆起土器의 성립과 전개
·申鍾煥, 岩寺洞遺蹟의 층위학적 검토
·黃昌漢, 蔚山 黃城洞 細竹遺蹟
·金鍾贊, 蔚山 細竹遺蹟의 절대연대
·李東注, 蔚山 牛峯里遺蹟의 성격
·任鐘鐘, 釜山 東三洞貝塚
·申熙權, '98-'99 高城 文岩里 신석기유적 발굴조사
·李永德, 鎭安 갈머리(葛頭)유적 발굴조사 개요

▶ 圖錄 발간

- 蔚山細竹遺蹟(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2)
- 동삼동패총전시관 전시도록(부산박물관, 2002.4)

4. 논문 및 사례발표

- ▶ 韓國先史考古學報 8(한국선사고고학회, 2001. 12)
·金英熙, 암사동 신석기문화와 중국 동북지역과의 관계
·이동주, 암사동 빗살문토기의 원류에 대한 새로운 시점
·임효재, 암사동 신석기문화 연구의 전망
·Sarah M. Nelson, Western Approaches to the
Neolithic and Their Application to Amsadong
·內山純藏, 繩文から岩寺洞へ -일본에 있어서 동물고고학
·민속학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생
업활동에 관한 고찰-
- ▶ 한국고고학보 46(한국고고학회, 2002. 4)
·이상균, 한반도 중서부 빗살문양토기의 기원과 전개
·이준정, 패총유적의 기능에 대한 고찰 - 생계·주거체계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모색

▶ 기타

- 김은영, 신석기시대 貝類의 제작과 분류(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박물관연구논집, 2001.12)
- 하인수, 신석기시대 대외교류(부산광역시립박물관 박물관연구논집, 2001.12)
- 박순발·성정용·이형원, 아산만지역 신석기유적(백제연구 35, 2002.2)

5. 발굴보고서 발간

- 노래섬貝塚 1, 群長國家工團造成地域(群山地區)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원광대학교박물관·마한·백제문화연구소(최완규·김종문·이영덕), 2002. 5.
- 대죽리 유적, 한서대학교박물관총서 제3집, 한서대학교박물관(안덕임·임혜연), 2001.12.
- 漣川 三巨里遺蹟, 경기도박물관(송만영), 2002. 2.
- 오이도 가운데살막패총, 서울대학교박물관, 2001. 12.
- 오이도 뒷살막패총,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4.

6. 부산박물관 동삼동패총전시관 개관

-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2동 749-8번지
- 규모 : 연면적 484m²(지상 1층, 지하 1층), 전시실면적 203m²
- 전시유물 : 빗살무늬토기, 석기 등 100여점(모형 11점)
- 인력 : 5명(학예연구사2, 기능직1, 청경2명)
- 전시구성 및 내용
 전시는 신석기문화로의 초대(패널전시), 동삼동패총의 이해(토층전시 및 모형전시), 동삼동패총의 생활(실물 및 모형)의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삼동패총 발굴 성과와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신석기문화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도 부산박물관에서 발굴한 패총의 토층을 원형 그대로 전시하고 발굴지를 1/10로 축소한 모형을 전시하여 동삼동패총 보다 쉽게 관람객이 알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발굴 성과를 기초로 당시 동삼동 해안가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마을 풍경과 생활 모습을 모형과 영상으로 전시하였다. 또한 동삼

동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을 토기, 생활도구, 어로도구, 한일문화교류, 신앙과 의례로 나누어 전시하여 신석기인들의 일상 생활모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7. 유적

▶ 제주도 마장동동굴유적 발굴조사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신천리 마장굴 동굴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주거 흔적과 토기편, 탐라 시대 패총 등이 나왔다. 제주문화예술회관 문화재연구소는 남제주군 성산~표선 구간 국도12호 선 확장포장사업으로 훼손되는 마장굴 동굴유적에 대한 조사를 작년 12월과 금년초에 착수, 동굴 외부에서 신석기 시대의 柱穴과 竪穴群, 적석유구, 후기양식의 압인문토기를 발견하였다. 반면 동굴 내부에서는 세선용기문토기가 출토되어 흥미를 끈다.

▶ 양양 용호리유적 긴급발굴조사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 127번지(설악해수욕장 바로 길 건너편) 여관건축을 위하여 터파기를 실시하던중 신석기시대 야외노지와 철기시대토기편이 발견되어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금년 4월중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7기, 소토유구 4기, 용기문토기 생활면 1곳과 철기시대 유구 등 총 1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야외노지는 지름 100 내지 80cm의 원형으로 내부에 불먹은 돌들과 재가 차 있다. 소토유구도 돌은 없지만 야외노지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석기시대유물은 크게 즐문토기가 출토되는 지점과 용기문토기가 출토되는 지점으로 양분된다. 즐문토기는 야외노지와 소토유구에서 출토되며 바탕흙에는 활석이 섞여 있고 변형단사집선문, 삼각집선문, 어골문 등이 보인다. 즐문토기와 함께 조합식 어구, 어망추, 구순각목에 2줄의 빗금이 새겨진 토기편도 출토되었다. 용기문토기가 출토된 곳은 갈갈색의 점토가 등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관 터파기 공사시 심하게 파괴되어 버렸다. 이 지점에서는 즐문토기는 출토되지 않았으며 용대문토기와 함께 두립문토기편도 출토되었다.